

결선이나 과반득표냐...셈법 복잡해진 '운명의 3파전'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 잇단 단일화...표심 어디로

민형배·주철현 오늘 단일화...김영록·신정훈과 경쟁 캠프마다 과반 득표 기대...지지층 결집 최대 관건 결선에서도 지지 선언·정책연대 등 합종연횡 예고

6·3지방선거 D-63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이 후보간 단일화로 3파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본경선에서 후보가 확정될지, 아니면 상위 2명이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신정훈·김기정 후보가 신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한 데 이어 민형배·주철현 후보도 단일화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양측은 민형배 후보로의 단일화를 추진 중이며, 1일 전남 여수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 후보 측 관계자는 "주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은 사실"이라며 "정책과 단일화 방식 등을 놓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현실화된다면 민주

당 경선 구도는 김영록·민형배·신정훈 3파전으로 압축된다.

신정훈 후보가 김기정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광주 기반 지지층 일부를 흡수했으며, 김영록 후보 역시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병훈 전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과 '원팀'을 구성하며 조직 기반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놓고 전남 등부권을 축으로 한 민형배 후보, 전남 중부권을 기반으로 한 신정훈 후보, 전남 서부권 중심의 김영록 후보로 표심이 나뉘는 '권역별 3자 대결' 구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다자 경쟁이던 양상이 빠르게 정리되면서 표심이 결선이나 본경선에서 갈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보간 단일화 흐름이 급격히 전개되며 표심이 재편되는 국면에서 특정 후보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의 분석이다.



3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KBS광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본경선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철현, 민형배, 신정훈, 김영록 후보.

각 후보 진영 내부에서는 '이번 주 내 후보 확정'이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영록·민형배 캠프 모두 단일화 후 지지층 결집이 본격화될 경우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단일화가 연쇄적으로 이뤄지면서 표가 분산되기보다 특정 후보로 결집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

다"며 "3자 구도에서 한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며 결선 없이 본경선에서 바로 승부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변수도 여전하다. 단일화 이후 탈락 후보들의 추가 지지 선언이나 연대 여부, 권리당원 투표율과 여론조사 흐름이 맞물리며 막판 반세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

이들 염두에 놓은 듯 김영록 후보는 이

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기정·신정훈 후보의 단일화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후보가 광주시장 직을 수행하며 이뤘던 통합돌봄, 인공지능산업 육성, 군공한 이천 결정 등을 확대하고, 신 후보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반도체 분야 정책 연대에 대해 기대를 내비치는 등 결선 투표를 겨냥한 포석을 뒀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결선투표까지 간다면 후보들 사이의 합종연횡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누가 3파전에서 떨어진 세력을 흡수하는지가 경선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경선은 3일부터 5일까지 권리당원 50%와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고유가 피해지원...1인당 10만~60만원 준다

정부, 26조 추정...소득하위 70% 3580만명 차등 지급
석유 최고가격제·유류비 경감 5조 반영...이달 중 예정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으로 서민층이 겪는 이중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이르면 4월에서 5월 초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제사태에 1조원이 쓰인다.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정부는 또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총 26.2조 규모 2026년 추경예산 중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원 지원 내용

수도권	1차 우선지급			2차 지급
	차상위 한부모 (56만 명)	기초수급 (285만 명)	소득하위 70% (3,256만 명)	
수도권	40만 명	50만 명	10만 명	15만 명
비수도권	16만 명	10만 명	20만 명	2만 명

※ 1차 우선지급 대상 제외: 소득상위 30% 가구, 차상위 한부모 제외 가구, 기초수급 제외 가구, 차상위 한부모 제외 가구, 차상위 한부모 제외 가구

※ 2차 지급 대상 제외: 소득상위 30% 가구, 차상위 한부모 제외 가구, 기초수급 제외 가구, 차상위 한부모 제외 가구, 차상위 한부모 제외 가구

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비우체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여수산단서 '나프타 대란' 대응 모색

민주당, 오늘 여천NCC 방문·석화업계 대책 간담회

'중동사태'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수국가산단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화 산업 특성상 원료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동시에 발생하며 지역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31일 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여수산단을 방문해 나프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중동발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장 방문은 여천NCC에서 진행된다.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간담회가 이어진다. 간담회에는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비롯해 롯데케미칼, LG화학, GS칼텍스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원가 부담과 수급 불안, 물류 애로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도 함께 자리에 정책 대응 방향을 공유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나프타 가격 상승과 해상 운임 급등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한 상태다. 나프타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생산의 출발점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구조 탓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다.

▶2면서 계속

송대경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이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